



Contents

1. 수두	03
2. 유행성이하선염	09
3. 수족구병	15
4. 인플루엔자	21
5. 로타바이러스	29
6. 성홍열	35
+ 참조	41

+

+

1

수두

+

+

+

+



수두



Varicella, Chickenpox

유행시기 | 봄철 4월~6월, 가을철 10월~1월

수두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환자수두 예방접종을
받은 환자

수두란?



수두는 전염성이 아주 강한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분비물이 공기를 통해 전염이 되기도 하고 환자의 물집의 진물을 통해 전염이 되기도 합니다. 수두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두 예방접종을 받는 것입니다. 주로 4~6세 소아에서 많이 발생하며, 유행시기로는 4월~6월, 10월~1월까지 환자 발생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증상

- ▶ 온 몸에 가려움을 동반한 물집이 생김
- ▶ 발열
- ▶ 두통
- ▶ 권태감, 나른함, 무력감
- ▶ 수두 예방접종을 맞아도 수두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나 증상이 약하며 짧게 지속됨

전염기간

- ▶ 발진 1~2일 전부터 모든 물집에 딱지가 생길 때까지

전염경로

- ▶ 환자의 물집에 직접접촉 또는 호흡기 분비물의 공기 전파를 통해 감염
- ▶ 긴밀한 접촉이 흔한 학교, 어린이 보호시설 등에서 유행 발생

수두 환자 발생시**환자관리**

- ▶ 모든 물집에 딱지가 생길 때까지 등원 및 출근 중지 (발진 발생 후 최소 5일간)
- ▶ 수두 예방접종을 시행한 사람은 딱지가 생기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24시간 동안 새로운 피부병변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등원 중지

접촉자관리

- ▶ 추가환자 발생 감시
- ▶ **수두 접종력이 없고, 수두를 앓은 적이 없는 사람:** 환자에 노출된 경우 3일 이내에 예방접종 권장(발병 예방 및 증상 완화 효과 있음)
- ▶ 수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개인위생 수칙 교육



물집 딱지



등원 중지



예방접종



위생 수칙 교육

환경관리

- ▶ 최소한 2~4시간 창문 등을 열어 자연 환기
- ▶ 교실 내 물품,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및 화장실 등 소독제*를 이용하여 매일 닦아 냄
- ▶ 식기는 끓이거나 소독제에 담가 설거지 후 자연 건조
- ▶ 환자 주변을 정리한 걸레는 따로 구별하여 사용
- ▶ 취약지역(화장실, 급수장, 쓰레기장, 하수도, 조리실, 기숙사 등)을 집중관리

*소독제: 희석한 락스 또는 70% 이상의 알코올(p. 42 [참조1] 참고)



환기



소독



구별 사용



취약 지역 관리

예방 및 치료**일반적인 예방**

- ▶ 올바른 손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구석구석 손씻기
- ▶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 등으로 오염된 물건 소독

예방접종

- ▶ 대상 및 시기: 생후 12~15개월에 1회 접종 (13세 이상은 4~8주 간격으로 2회 접종)

치료

- ▶ 건강한 소아에게 발생한 수두는 대개 자연 치유됨
- ▶ 소양증이 심한 경우 국부 드레싱 및 항히스타민제 경구 투여
- ▶ 2차 세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목욕, 손톱 깎기 등 위생 관리가 중요



손씻기



예방접종



진료



손톱 깎기

수두 유행에 대한 가정통신문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우리 원에서 수두 유행이 발생하여
이에 관한 예방 및 조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두란? 📌

수두는 전염성이 아주 강한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침, 가래 등으로 전파되거나, 환자의 피부병변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전염될 수 있습니다. 수두 환자와 접촉 후 수두 발생까지는 10~21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수두의 증상은 처음에는 감기와 비슷한 증세로 1~2일간 발열과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가려움을 동반한 발진이 얼굴에서부터 몸통과 팔다리로 퍼지며 차츰 딱지가 생기게 됩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아이들은 합병증 없이 회복됩니다. 수두는 모든 피부병변에 딱지가 생길 때까지, 혹은 24시간 동안 새로운 피부병변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전염력이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등교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두 예방접종을 받았지만 수두 예방접종 후에도 일부의 학생들은 수두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은 아이들이 수두에 걸릴 경우 증상이 심하지 않으며 피부병변의 수도 적고 짧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두 예방접종의 중요성 ❤️

귀댁의 자녀가 수두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없고 수두를 앓은 적이 없는 경우, 의사와 상의하여 수두 예방접종을 받도록 합니다. 수두 환자와 접촉한 후에도 3일 안에 예방접종을 할 경우 90% 이상 발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발병하여도 증상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자녀가 수두에 걸렸거나 의심될 경우 📌

1. 의사의 진찰을 받고 가족 중 예방접종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의사와 상의합니다.
2. 담임교사와 보건교사에게 자녀가 수두에 걸렸음을 알립니다.
3. 수두 예방접종력이 없고 수두에 걸린 적이 없는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모든 피부병변에 딱지가 생길 때까지(혹은 24시간 동안 새로운 피부병변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등교를 하지 않고 집에 있도록 합니다.
4. 모든 피부병변과 상처는 깨끗이 관리하고 2차감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5. 가족 중 면역기능이 저하된 사람이나 임신부가 있을 경우 즉시 의사와 상의하도록 합니다.

20 . . .
OO어린이집 원장

유행성이하선염



유행성이하선염 바이러스

Mumps virus

유행시기 | 봄철 4월~6월, 가을철 10월~1월



유행성이하선염에 감염되어
침샘 부종으로 목이 부은 아동의 모습

유행성 이하선염 이란?

유행성이하선염은 흔히 ‘볼거리’라고 불리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이며, 보통 귀 밑 침샘 부위가 붓고 아픈 증상을 보입니다.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로 쉽게 전염이 가능하며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로 4~6세 소아, 13~18세 청소년에게 발생하며, 유행시기로는 4월~6월, 10월~1월까지 환자 발생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증상

- ▶ 침샘의 부종(귀 아래나 턱이 부풀어 오름)
- ▶ 발열, 두통
- ▶ 근육통
- ▶ 권태감, 나른함, 무력감, 식욕부진
- ▶ 보통 1~3일째에 가장 심한 증상을 나타내고 3~7일 이내에 호전됨



침샘부종



근육통



발열



나른함

전염기간

- ▶ 증상 발현 3일 전부터 5일 후까지

전염경로

- ▶ 환자의 침, 가래, 콧물에 의해 사람 간 전염
- ▶ 환자가 기침, 재채기, 말을 할 때나 식기구를 함께 사용한 경우 전염

유행성이하선염 환자 발생시

환자관리

- ▶ 이하선염 증상 발현 후 5일까지 등원 및 출근 금지

접촉자관리

- ▶ 유증상자 및 추가환자 발생 모니터링
- ▶ 면역력이 없는 경우 예방접종 권고



등원금지



모니터링



예방접종

환경관리

- ▶ 최소한 2~4시간 창문 등을 열어 자연 환기
- ▶ 교실 내 물품,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및 화장실 등 소독제*를 이용하여 매일 닦아 냄
- ▶ 식기는 끓이거나 소독제에 담가 설거지 후 자연 건조
- ▶ 환자 주변을 정리한 걸레는 따로 구별하여 사용
- ▶ 취약지역(화장실, 급수장, 쓰레기장, 하수도, 조리실, 기숙사 등)을 집중관리

*소독제: 희석한 락스 또는 70% 이상의 알코올(p. 42 [참조1] 참고)



환기



소독



구별 사용



취약 지역 관리

예방 및 치료

일반적인 예방

- ▶ 올바른 손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구석구석 손씻기
- ▶ 호흡기 분비물 등으로 오염된 물건 소독

예방접종

- ▶ 대상 및 시기: 생후 12~15개월, 만 4~6세에 MMR 백신 2회 접종

치료

- ▶ 대부분 자연 치유가 가능
- ▶ 수분 및 전해질 보충, 적정 식이 및 정맥을 통한 영양 공급
- ▶ 항바이러스제, 스테로이드 투여, 수동면역 등은 권장되지 않음



손씻기



소독



예방접종



수분 공급

유행성이하선염 유행에 대한 가정통신문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우리 원에서 유행성이하선염 유행이 발생하여
이에 관한 예방 및 조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행성이하선염이란? 📖

유행성이하선염은 흔히 '볼거리'라고도 하며 이하선(귀 아래의 침샘)이 부어오르고 열과 두통이 동반되는 전염성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유행성이하선염은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침, 가래와 같은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거나 환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전염될 수 있으며, 잠복기는 보통 16~18일 정도이며 25일까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전염력이 가장 높은 시기는 증상 발현 1~2일전부터 발현 5일 후까지이며, 증상 발현 5일까지는 호흡기 격리가 필요하므로 이 기간에는 등교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행성이하선염의 가장 흔한 증상인 이하선염외에도 뇌수막염, 고환염, 난소염, 췌장염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건강한 아이들은 특별한 합병증을 남기지 않고 회복이 됩니다.

MMR 예방접종의 중요성 💖

MMR은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으로 우리나라는 MMR 예방접종을 생후 12~15개월, 만4~6세에 2회 접종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MMR 예방접종을 받았지만 MMR 예방접종 후에도 일부의 학생들은 유행성이하선염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이들보다 증상이 심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유행성이하선염을 앓은 적이 없고, MMR 예방접종을 2회 모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하여 MMR 예방접종을 받도록 합니다.

자녀가 유행성이하선염에 걸렸거나 의심될 경우 🏥

1. 유행성이하선염에 걸렸거나 의심될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합니다.
2. 유행성이하선염을 진단받은 경우 담임선생님과 보건교사 선생님에게 자녀가 유행성이하선염에 걸렸음을 알립니다.
3. MMR 예방접종력이 없고 유행성이하선염에 걸린 적이 없는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유행성이하선염 증상 발현 후 5일까지는 학교 등에서의 집단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등교를 하지 않고 집에 있도록 합니다.
4. 손 씻기를 자주하고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를 사용하거나 손수건이나 옷으로 가리고 하도록 합니다.
5. 타액이나 호흡기 분비물 등으로 오염된 물건은 비눗물로 소독하여 사용합니다.

20 . . .
OO어린이집 원장

3 수족구병



수족구병

Hand, Foot, and Mouth Disease(HFMD)

유행시기 | 봄철 4월~6월, 가을철 10월~1월



수족구병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환자

수족구병
이란?

수족구병은 바이러스성 감염에 의해 입 안, 손, 발에 물집성 발진이 생기는 감염병으로, 주로 5세 이하의 유아 및 아동에게 발생합니다.

증상

- ▶ 발열
- ▶ 식욕부진
- ▶ 인후통
- ▶ 권태감, 나른함, 무력감
- ▶ 열이 나기 시작한 1~2일 후 구강 내에 주로 혀, 잇몸, 뺨의 안쪽, 입천장 등에 통증이 있는 붉은 반점 발생
 - 이 반점은 수포 또는 궤양으로 변할 수 있음
 - 손, 발, 엉덩이에 피부 발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끔 팔, 다리에도 나타날 수 있음

전염기간

- ▶ 발병 첫 주에 전염성이 가장 크고,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몇 주간 전염시킬 수 있음

전염경로

- ▶ 환자와 직접 접촉 또는 비말을 통해 사람 간 전파
 - 수족구병 바이러스는 환자의 침, 가래, 콧물, 물집의 진물, 대변에서 발생됨
 -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공기로 전염
 - 바이러스가 묻은 물체를 만진 뒤 눈, 코, 입 등을 만졌을 때 전염
- ▶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수영장에서도 전염 가능

수족구병 환자 발생시

환자관리

- ▶ 수족구병 환자는 등교·등원 중지 권장
- ▶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고 자가 격리
- ▶ 대변에서 바이러스 배출이 수 주간 지속 가능하므로 손 위생이 중요

접촉자관리

- ▶ 접촉자 지속적으로 발생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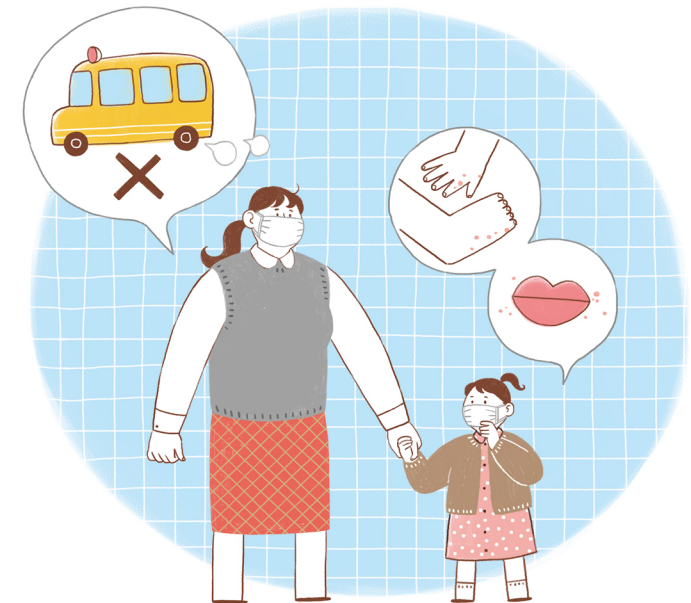
예방 및 치료

예방

- ▶ 현재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음
- ▶ 개인위생이 최선의 예방 방법임
 - 올바른 손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구석구석 손씻기(특히 기저귀 교체 전후와 배변 후)
 - 아이들의 손이 닿는 모든 물건 청결(소독)히 하기
 - 수족구병 환자와 입맞춤이나 포옹을 삼가고 환자의 식기구 함께 쓰지 않기

치료

- ▶ 치료제는 없음
- ▶ 대부분의 환자들이 7~10일 후 자연적으로 회복
- ▶ 통증과 열 경감을 위해 해열 진통제 복용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



수족구병에 대한 가정통신문

학부모님/보호자님께

최근 수족구병이 어린이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 수족구병 예방을 위한 안내를 드립니다.
수족구병은 주로 5세 이하 유아 및 아동에게 콕사키바이러스나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으로,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으로, 드물게 무균성뇌수막염, 뇌염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수족구병의 증상 및 주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수족구병 증상이 있는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어린이들에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증상이 있는 경우 집단생활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수족구병 주요증상 🏠

- ▶ 전신증상: 발열, 식욕감소, 무력감
- ▶ 위장증상: 설사, 구토
- ▶ 발진/수포(물집): 주로 입, 손, 발, 영유아의 경우 기저귀가 닿은 부위

수족구병 의심 또는 진단 시 주의사항 💖

- ▶ 드물게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수족구병 의심증상이 있으면 병원에서 진료받기
- ▶ 수족구병에 걸린 아동은 열이 내리고 입의 물집이 나올 때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가지 않을 것을 권장

수족구병 예방수칙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등
- 특히 산모, 소아과나 신생아실 및 산후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 등

철저한 환경관리

- 아이들의 장난감, 놀이기구, 집기 등을 청결(소독)히 하기
-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을 철저히 세탁하기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바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자가 격리하기

위의 사항을 숙지하여주시고 수족구병 발생 예방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20 . . .
OO어린이집 원장

4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Influenza virus

유행시기 | 겨울철 11월~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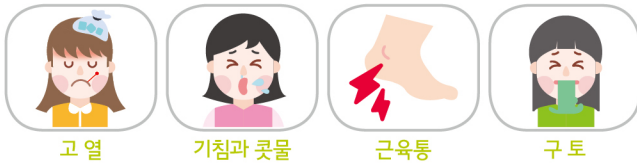


인플루
엔자란?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는 병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호흡기(코, 인두, 기관지, 폐 등)로 들어와 감염되는 병입니다. 인플루엔자 환자가 기침, 재채기, 말을 할 때 공기 중으로 바이러스가 배출되며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일반 '감기'와는 달리 심한 증상을 나타내거나 생명이 위험한 합병증(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증상

- ▶ 급격한 고열(고열이 없는 경우도 있음)
※ 열은 급격히 상승하여 발병 후 1~3일 이내 38~39℃ 또는 그 이상에 도달, 이후 다른 증상과 함께 회복하며 1주일 정도 내에 대개 정상 체온으로 복귀
- ▶ 호흡기 증상(콧물, 인후통, 기침 등)
- ▶ 전신 증상(두통, 오통, 근육통, 전신 피로감 등)
- ▶ 구토 및 설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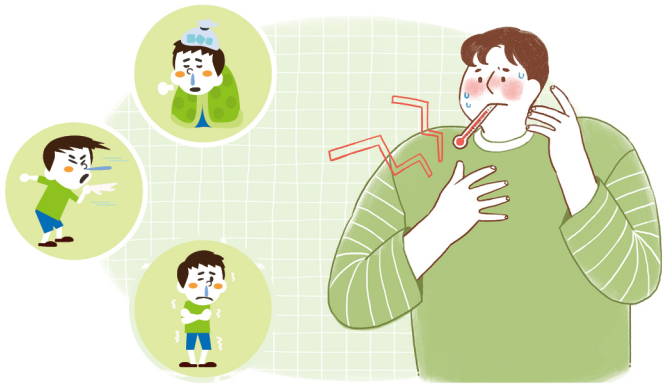


전염기간

- ▶ 대체로 증상발현 1일 전부터 약 5~7일 정도
- ▶ 소아는 증상 시작 후 10일 이상 전염가능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음

전염경로

- ▶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분비되는 침, 콧물을 통해 전파
- ▶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후, 눈, 코, 입 등을 만지는 경우에 발생
※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밀집된 공간에서는 공기 전파도 가능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시

환자관리

- ▶ 증상 발생 후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등원 및 업무 제한하며 집에 머무르기
- ▶ 어린이, 노약자 등 고위험군과 접촉을 피하도록 권고
- ▶ 사람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권고
- ▶ 마스크 착용



환경관리

- ▶ 환경 소독
 - 일상적인 청소(또는 세척) 및 소독에 대해서는 일반적 절차 준수하나, 인플루엔자 유행시기에는 책상, 계단 난간, 문 손잡이, 컴퓨터 키보드, 수도꼭지 손잡이, 전화기 및 장난감 등 자주 접촉하는 물건의 표면을 소독액으로 충분히 적신 수건이나 소독용 티슈로 닦아 소독
 - 눈에 띄게 더러워진 표면이나 물건은 즉시 청소 또는 세척
 - 청소나 소독 시 마스크(부직포제 권장), 일회용 방수 장갑 등 반드시 착용
 - 물건이 체액이나 혈액으로 더러워지면 일회용 장갑 등을 사용하여 신체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면서 청소 또는 세척 시행 후 소독
 - 청소·소독 후에는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또는 손위생을 준수
- ▶ 일상적인 청소(세척) 및 소독
 -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표준 세척 및 소독 방법만으로도 제거가 가능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표면에 오염된 후 2~8시간 정도 생존하며 이 시기에만 잠재적으로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으므로 청소나 소독 시에 휴교나 폐쇄를 할 필요는 없음
 - 벽과 천장을 닦아내거나 실내 공기 방취제 사용·훈증 등의 특수한 세척이나 소독 과정은 일반적으로 권장하지 않음
※ 이러한 특수 세척이나 소독은 사람의 눈·코·목과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며, 천식 악화 등의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이 있음

▶ 올바른 청소와 소독

- (1단계) 일반 가정용 청소 비누 또는 세제와 물로 청소
- (2단계) 표면이나 물건의 소독
 - 소독 후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제거됨
- 세제 및 소독제 등으로 청소할 때는 기본적으로 제품 설명서를 준수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사용하며, 사용 전 제품 설명서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유효성 승인 여부를 확인
- 위와 같은 소독제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염소 표백제를 사용
 - ※ 소독제: **희석한락스 또는 70% 이상의 알코올(p. 42 [참조1] 참고)**
- 전화기나 컴퓨터 등과 같이 자주 만지는 전자 제품에는 소독용 티슈 등을 사용하여 청소
 - ※ 소독용 티슈는 식약처의 감염병예방용 살균제로 허가된 제품을 사용
 - 소독용 티슈 사용 시 설명서 및 사용 방법을 준수
 - 전자 제품이 세척 및 소독을 위해 액체 사용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
- 식기는 평소와 같은 방법으로 식기 세척기 또는 주방세제와 물로 설거지
- 침구류, 수건 및 기타 린넨 제품은 각 옷감의 세탁 방법에 따라 가정용 세탁비누로 세탁
- 더러워진 접시 등 식기와 세탁물을 다룬 후 마지막에 비누를 이용하여 손씻기
 - ※ 아픈 사람이 사용하는 식기 및 린넨은 별도로 취급할 필요는 없으나, 철저히 세척하도록 권고

▶ 올바른 세제 및 소독제 사용

- 세제 및 소독제 등 청소용품 사용 전에 교직원 및 청소 담당자는 제품 설명서 및 사용방법을 숙지하여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익힌 뒤 청소 시행
- 별도의 안내가 없는 한, 세제와 소독약을 섞는 등의 사용 방법은 위험할 수 있음
 - ※ 예시 : 염소 표백제와 암모니아 세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부상을 입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 가능
- 청소 시 일회용 방수 장갑, 눈 보호 장치, 방수용 앞치마 등을 착용

▶ 폐기물 처리

- 사용하기 쉬운 곳에 노터치 휴지통(휴지통 뚜껑을 손으로 열지 않고 발등을 이용) 배치
- 청소할 때 쓰는 일회용품은 사용 직후에 쓰레기통에 폐기
- 쓰레기통을 비울 때 사용한 휴지 및 기타 쓰레기에 신체를 접촉하지 않으며, 접촉한 경우 반드시 비누로 손씻기 시행

예 방

일반적인 예방

- ▶ 올바른 손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구석구석 손씻기
- ▶ 기침예절: 기침 할 때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 가리고 하기 및 마스크 착용 하기
- ▶ 손으로 눈, 코, 입 등을 만지지 않기
- ▶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피하기
- ▶ 환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 시설 청소 및 소독하기

예방접종

- ▶ 2회 접종 대상자: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 중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으로 받거나', '처음 접종하는 해에 1회만 접종하여 면역 형성이 완벽하지 않은 어린이'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 ▶ 1회 접종 대상자: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누적 2회 이상을 맞았거나, 만 9세 이상의 어린이
- ▶ 접종 후 2주 후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나므로 가능하면 11월 이전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함



손씻기

마스크 착용

소독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발생 주의 안내문

학부모님/보호자님께

최근 인플루엔자가 어린이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안내를 드립니다.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항바이러스제로 치료가 가능하고, 간혹 폐렴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진료를 통해 빠른 시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 및 주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어린이들에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증상발생(발열) 후 5일 경과' 그리고 '해열제 없이 해열 후 2일 경과'를 모두 충족할 때까지 등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플루엔자 의심증상 🚨

- ▶ 갑작스러운 발열
- ▶ 전신 증상
- ▶ 두통, 요통, 근육통, 전신 피로감 등
- ▶ 호흡기 증상
- ▶ 콧물, 목 아픔, 기침 등

인플루엔자 의심 또는 진단 시 주의사항 💖

- ▶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빠른 시일 내 진료
- ▶ 해열제 없이 발열 소실 24시간 경과 후 등원/등교 가능

인플루엔자 환아 간호 시 🧴

- ▶ 충분한 수분 섭취 및 휴식
- ▶ 매일 발열을 확인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관리
- ▶ 기침이나 재채기 시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도록 교육
- ▶ 기침이나 재채기, 또는 코를 킂 후에는 올바른 손씻기

위의 사항을 숙지하여주시고 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20 . . .
OO어린이집 원장

로타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Rotavirus

유행시기 | 늦은 겨울과 이른 봄

로타 바이러스란?

로타바이러스는 설사와 구토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5세 미만의 아동에서 흔한 질환입니다. 주요 증상인 설사와 구토로 인하여 심각한 탈수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증상

- ▶ 발열
- ▶ 복통
- ▶ 구토
- ▶ 수양성 설사
- ▶ **보통 증상은 4~6일정도 지속됨**

전염기간

- ▶ 대변 내 로타바이러스 배출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시작되어 대개 2주 이내에 전파가 가능
- ▶ 그러나 설사가 소실된 후 57일까지도 로타바이러스가 배출되기도 함

전염경로

- ▶ 환자의 대변이나 토사물로 오염된 물건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달되며 전파
- ▶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전파
- ▶ 바이러스로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섭취로 전파
- ▶ 어린이 보육시설, 소아병동, 산후조리원, 놀이방 등에서 전파가 흔함

예방 및 치료

예방

- ▶ 일반적인 예방
 - **올바른 손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구석구석 손씻기
 - **안전한 분유섭취:**
집단시설에서는 액체분유 사용 권장하며 물을 충분히 끓여먹기
- ▶ 예방접종
 - **5가 백신:** 생후 2, 4, 6개월 3회 접종
 - **1가 백신:** 생후 2, 4개월 2회 접종

치료

- ▶ **대증치료:** 경구 또는 정맥으로 수분, 전해질 보충

로타바이러스 환자 발생시

환자관리

- ▶ 로타바이러스 환자는 등교·등원 중지 권장

접촉자관리

- ▶ 접촉자 지속적으로 발생 모니터링

환경관리

- ▶ 환자 간호에 필요한 물품(기저귀, 물휴지 등)은 환자와 가까이 배치하여 물품으로 인한 전파 기회 최소화
- ▶ 모든 환경 표면은 청결한 수준의 청소를 유지
- ▶ 환자의 분변 및 구토물이 다른 환경 표면이나 사람들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즉시 폐기
- ▶ 바이러스는 환경표면에서 최소 10일간 생존할 수 있으며, 염소계(20,000ppm) 소독제* 등을 사용하여 소독
*소독제: 희석한 락스 또는 70% 이상의 알코올(p. 42 [참조1] 참고)
- ▶ 환자 주변을 청소한 걸레와 다른 곳을 청소한 걸레는 구별되어야 하며, 하나의 걸레로 모든 표면을 닦지 않음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주의 안내문



학부모님/보호자님께 최근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이 어린이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안내를 드립니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로타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하였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으로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1~3일 안에 구토, 발열,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 및 주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증상이 있는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어린이들에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설사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집단생활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증상 📢

- ▶ 구토, 발열, 묽은 설사
- ▶ 보통 증상은 4~6일 정도 유지됨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또는 진단 시 주의사항 📢

- ▶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기
- ▶ 설사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집단생활 자제 권고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간호 시 📢

- ▶ 환자가 있었던 장소는 세제 등으로 더러워진 곳을 닦은 후 소독액(물:락스=1:1)을 뿌린 뒤 1분 후 물로 씻어주세요.
- ▶ 환자가 사용한 화장실은 소독액(물:락스=1:1)을 종이타월 등으로 문혀 닦고 1분 후에 물로 닦아주세요.
- ▶ 옷, 침구 등의 더러워진 곳을 닦고 소독액(물:락스=2:1)에 30분 정도 담근 후 세탁하십시오.
- ▶ 구토물, 분변은 소독액(물:락스=1:1)을 이용하여 키친타월, 걸레 등으로 닦아내면서 제거한 후 쓰레기봉투에 넣고 소독액을 뿌린 다음 버리십시오.

위의 사항을 숙지하여주시고 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20 . . .
OO어린이집 원장

6 성홍열



성홍열



Scarlet Fever



성홍열
이란?

성홍열은 박테리아에 의해 감염이 되며 갑작스런 발열, 두통, 인후통, 발진 등을 동반하는 급성 발열성 질환으로 주로 5세~15세 어린이에게 발생합니다.

증상

- ▶ 인두통이 동반되는 갑작스런 발열(39~40℃), 두통, 식욕부진, 구토, 복통 등
- ▶ 발진
 - 발열 1~2일 후면 작은 좁쌀 크기의 발진이 입주위 및 손발바닥을 제외한 전신에 나타남
 - 선홍색의 작은 구진이 넓게 퍼져서 나타나며, 햇볕에 탄 피부에 소름이 돋은 것 같이 보이기도 함
 - 발진은 보통 7일 후면 사라지며, 손톱 끝, 손바닥, 발바닥 주위로 피부 껍질이 벗겨지기도 함
- ▶ 이마와 뺨 등 얼굴은 홍조가 나타나지만 입 주위는 창백
- ▶ **혀**: 처음에는 회백색이 덮이고 돌기가 현저히 두드러지는 모양이며 발병 후 2~3일 지나면 붉은 색을 띠고 돌기가 붓는 딸기 모양이 됨
- ▶ 편도선이나 인두 후부에 점액 화농성의 삼출액, 경부 림프절 종창 등
- ▶ 무증상 보균자의 빈도는 약 8.5~21.9%



발열 및 두통



발진



홍조



혀 모양

전염기간

- ▶ 항생제 치료 시작 후 24시간까지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는 2~3주까지 전염이 가능)

전염경로

- ▶ 환자의 침, 가래, 콧물에 의해 사람 간 전염
- ▶ 환자가 기침, 재채기, 말을 할 때나 식기구를 함께 사용한 경우 전염
- ▶ 긴밀한 접촉이 흔한 학교, 어린이 보호시설 등에서 유행 발생



콧물



재채기



식기구 함께 사용



학교 및 보호시설

성홍열 환자 발생시

환자관리

- ▶ 항생제 치료 시작 후 최소 24시간까지 등원 및 출근 금지
- ▶ 입원한 경우는 항생제 치료 시작 후 24시간까지 비말격리

접촉자관리

- ▶ 유증상자 및 추가 환자 발생 모니터링

환경관리

- ▶ 가구 표면, 장난감, 손잡이 등 자주 접촉하는 환경 표면을 자주 세척 및 소독



등원 중지



모니터링



소독

예방 및 치료

예방

- ▶ 일반적인 예방
 - **올바른 손씻기**: 손에 묻은 균에 의해 감염이 쉬우므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구석구석 손씻기
 - **기침예절**: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 가리고 하기,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마스크 착용하기
 - 식기구, 담요, 수건 등 개인 용품 공유하지 않기
- ▶ 예방접종
 - 현재 백신은 개발되어 있지 않음



손씻기



마스크착용



구별 사용

치료

항생제 치료(아목시실린, 페니실린계 항생제)

성홍열 발생 주의 안내문



학부모님/보호자님께 최근 성홍열이 어린이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
성홍열 예방을 위한 안내를 드립니다.

성홍열은 인두염을 일으키는 세균인 A군 사슬알균(*Streptococcus pyogenes*)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발열성 질환으로,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고, 간혹 류마티스열이나 급성사구체신염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진료를 통해 빠른 시기에 항생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성홍열 의심 증상 및 주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성홍열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성홍열로 진단되는 경우는 의사 처방에 따라 항생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어린이들에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항생제 치료 시작 후 최소 24시간까지는 등원을 시키면 안됩니다.

..... 성홍열 증상 📋

- ▶ 갑작스러운 발열
- ▶ 갑자기 발생한 인두염과 인후통
- ▶ 두통, 메스꺼움, 구토, 복통
- ▶ 증상 발생 12~48시간 이내 선홍색 작은 발진

..... 성홍열 의심 또는 진단 시 주의사항 💖

- ▶ 성홍열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빠른 시일 내 진료
- ▶ 항생제 치료 시작 후 최소 24시간까지 등원 중지
- ▶ 항생제는 처방에 따라 모두 복용하여 치료 완료

..... 성홍열 환자 간호 시 🚫

- ▶ 충분한 수분 섭취 및 휴식
- ▶ 가능한 말을 삼가고 가습기 사용
- ▶ 매일 발열을 확인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관리
- ▶ 기침이나 재채기 시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도록 교육
- ▶ 기침이나 재채기, 또는 코를 킂 후에는 올바른 손씻기

위의 사항을 숙지해주시고 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20 . . .
OO어린이집 원장

참조자료





[참조1] 소독액 조제방법



소독액 조제방법

준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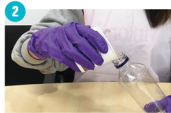
가정용 염소계 표백제(염소농도 4%, 예: 락스 등), 일회용 고무장갑, 종이타월, 500ml 페트병(잘 씻어 건조한 병), 종이컵(180ml), 마스크 및 앞치마(감염방지용), 쓰레기봉투(버리기 쉽도록 미리 쓰레기통에 씌워놓음)



감염병	염소농도	희석방법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인플루엔자	500ppm(염소 0.05%) • 단 화장실은 20,000ppm(염소 2%)	빈생수통 500ml에 소독약 두경 1/5양(0.25mg)의 염소를 붓고, 나머지를 수도물로 채운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1,000ppm(염소 0.1%)	빈생수통 500ml에 종이컵 1/5양(0.5mg)의 염소를 붓고, 나머지를 수도물로 채운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세균성 이질,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5,000ppm(염소 0.5%)	빈생수통 500ml에 종이컵 1/3양(2.5mg)의 염소를 붓고, 나머지를 수도물로 채운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A형간염	20,000ppm(염소 2%)	빈생수통 500ml에 1/5는 염소액, 4/5는 수도물로 채운다



1 염소계 표백제를 염소농도에 맞춰 종이컵에 따른다



2 빈 페트병에 붓는다



3 총량이 500ml가 되도록 페트병에 물을 채운다



4 두건을 달아 잘 흔들어 섞는다

소독 시 주의 사항



장갑, 마스크, 앞치마를 착용 후 소독액 희석 및 소독



소독을 할 때에는 창문을 연 상태 (외부 공기와 접촉 상태)에서 실시하고, 소독 후에도 충분히 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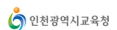
소독액은 가연성 물질에 가까이 두지 말고, 희석하여 사용 후에는 소독효과가 떨어지므로 보관하지 말고 버릴 것



사용한 걸레를 재사용 시에는 염소계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 후 사용



잠옷, 속옷, 시트, 천 기저귀 등이 오염되었을 경우, 더러워진 곳을 닦아 뉘은 소독액에 30분 정도 담근 후 세탁, 젖은 수건을 대고 스팀 다리미로 85도, 1분 이상 가열하는 것도 효과



[참조2] 소독액 조제방법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발생 시 소독방법

구토물이나 분변에는 바이러스가 가득하므로, 감염된 사람이 발생한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소독을 실시합니다.

1. 구토물이나 분변을 처리(소독액 준비)



1 일회용 타월을 제조회 소독액을 적신다



2 소독액을 적신 타월로 구토물을 닦는다



3 적신 타월로 구토물을 감싸서 제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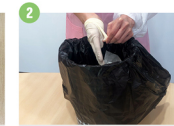


4 제거한 타월을 쓰레기통에 담는다

2. 구토물 등이 있던 곳과 주변을 소독



1 소독액을 적신 타월로 닦은 후, 10분 후 물로 닦는다



2 사용한 타월과 장갑도 쓰레기통에 담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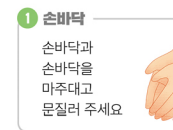


3 쓰레기봉투에 소독액을 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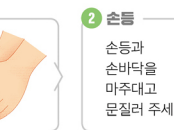


4 쓰레기봉투를 밀폐하여 버린다

3. 처리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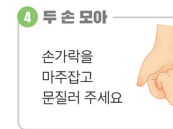
1 손바닥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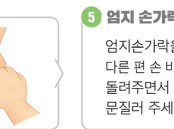
2 손등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



3 손가락 사이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가락을 끼고 문질러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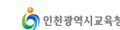
4 두 손 모아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 주세요



5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주세요



6 손톱 밑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질러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하세요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올바른 기침예절]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올바른 손씻기 6단계]

